

현대석유화학, 대학교에 장비 지원

지역대학과 협력체계 구축 ... 첨단 디지털 장비 교육용으로 재구성

현대석유화학(공동대표 정범식·박진수)이 첨단 산업현장에서 사용됐던 시스템 장비를 지역 소재 대학에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현대석유화학은 그동안 사용해오던 분산제어시스템(DCS)을 대학 실습용 시스템으로 재구성해 대산 소재 한서대학교와 신성대학에 7월21일 각각 기증했다.



기증된 장비는 국내·외 석유화학 공장과 제철소, 발전소 등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공정 자동제어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최첨단 자동제어시스템이다.

현대석유화학은 대학에서 교육 및 실습에 적합하도록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대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와 그래픽 등 각종 자료들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팩을 함께 제공했다.

현대석유화학 관계자는 “기증한 시스템이 대학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돼 대학생들이 첨단 디지털 장비를 직접 손으로 다루며 공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 역시 “첨단 시스템은 지역대학과 기업의 산·학 협력체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된다”며 “학생들에게 최첨단 산업용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준 현대석유화학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7/22>